본문 : 누가복음 10 장 25-37 절
제목 : 강도 만난 이웃

*신음하고 있는 이웃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삶이 매우 고달팠습니다. 가족 중에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었고 가족 안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겹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버티게 해 주었던 것은 한 유명한 스님의 팟케스트였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스님께 질문을 던지면 답해주시는 즉문즉답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그 스님이 귀한 이웃이 되어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복수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니 강도 여럿이 그를 덮쳤나 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eaving him half dead 로 표현합니다. 절반이 죽은 상태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당장 필요한 절박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손쓰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는 길가에 널브러진 채 심하게 신음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신음할 힘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에 처한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에게 해 주신 비유입니다.

* 율법 교사
율법교사는 모든 율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 정도라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바르지 않는 동기로 주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그는 영생이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주제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예수님은 그 보다 한 수 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며 받아칩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 강령을 이해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의 대답은 심플했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사실 우리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모른 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들의

평온함이 깨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곤경에 처한 신음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도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지갑을 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삶이 귀찮아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신학적인 주제이지 나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도 그때문입니다. '그대로 행하여라'는 말은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실천하며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율법학자는 자기가 던진 함정 질문에 자기가 빠져 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행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묻어 둔 채 새로운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합니다. 위기를 새로운 질문으로 벗어나보려는 시도인듯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곤경에 처한 한 이웃을 보여주고, 그를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로 바꿔 놓셨습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대답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지?'라는 질문을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지?'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웃은 지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서기도 어렵고, 목숨도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번에도 간명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신학적인 질문에 골똘하지 말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라는 부탁입니다.

우리는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인지 잘 압니다. 길 가에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봐주기 위해 땀을 흘렸고 힘을 쓰는 육체 노동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의 일정을 수정하면서까지 그를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과 비교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종교지도자들입니다. 율법교사와 친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들도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핵심 강령을 실천하지 않았죠. 성경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았지만 자비를 실천하는 수고는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다

이 비유를 이끌었던 율법 교사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였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겠습니까'로 번역됐지만 원래는 상속하다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가 직역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원래 뜻을 살려 inherit 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영생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시편 133 편이 이 영생 공동체를 잘 묘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어울려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영생이다라고 그 시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생으로 여겼습니다. 상속이란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잖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 오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 공동체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likewise do thi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바쁜 여행 일정을 조정하면서 네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을 살아야지! 그러면 영생을 상속할 수 있어." 영생 상속은 고도로 자발적으로 선한 일이 몸에 배인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영생이란 천국에서도 이어질 가치가 있는 것, 즉 영원히 지속될 가치가 있는 삶이라 했죠.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만한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선한 일이 몸에 배어서 아무런 감시 기능이 없어도 남의 돈을 조금도 취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 탐욕이 배제된 사람, 주려고 하는 사람, 흘러 넘치는 사랑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고도로 자발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자발성이 이렇게 가득 찼을까요? 매일 자기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이 고단한 분투를 해가기 때문입니다. 'Likewise do this', 이런 고도로 자발적인 자비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 강도 만난 지구

우리는 창조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스트레치 아웃 한다면 신음하고 있는 이웃은 우리의 별 지구와 그 위에 살아가는 인류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도처에서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약탈로 지구는 강도만난 이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하시던 이 지구별이 신음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창 1:25)"라는 구절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삶을 살라는 일종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라는 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 8 장 19 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피조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신앙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집중하느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 인간을 이 세상의 청지기로 세우셨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보살피고 돌볼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피조물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 넣었습니다. 피조세계의 우두머리인 인간이 강도가 되어 지구 생태계를 망쳐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생태신학자 프란츠 알트는 말합니다.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 질병의 원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이다. 지구는 그 인간을 죽이기 시작하였다." 지구는 몸살을 앓으며 인간을 이 별에서 토해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그 지구의 몸부림 중 하나입니다.

인류의 산업화로 화석연료가 사용하면서부터 이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화석연료는 태워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의 과다한 배출은 지구의 온도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구가 열이 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 때문에 열 받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급증하자 바다가 산성화되고 산호초의 폐사율이 늘어나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빙하가 녹아 내림으로 해수면은 올라가고, 해류의 이동을 바꿔 놓아 기후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집중 호우와 가뭄, 혹한, 혹서 등 기후 재앙이 세계 곳곳을 덮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공포는 다만 Covid-19 이라는 펜데믹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전 지구를 덮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지만 우리는 크게 반성하지 못한 듯합니다. 생물종의 멸종으로 한 해에 4 만 종의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고, 2100 년이 되면 동식물의 50%가 멸종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살고 있는 지구가 각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만난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 불편을 선택하십시오.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이렇게 망쳐 놓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강도 만난 지구에게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지구를 열을 식혀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영원히 지속될만한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새창조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발 딛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보전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부터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이란 것이 화석연료를 합성하여 만든 고분자 화합물이잖아요. 고분자 화합물이다 보니 잘 썩지 않고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화석 연료는 무조건 줄이는 생활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전거는 지구와 공존을 열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일회용을 줄이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1 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에 나오실 때 일부러 텀블러를 가지고 와주세요. 봉사부에서는 1 회용 컵을 아예 비치를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불편한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하고 있는 지구와 화해하는 길일지 모릅니다. 좀 더 불편해지면 지구에 더 좋은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구에게 덜 부담을 주는 생활 방식이 절실한 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이웃을 위해 불편을 선택하는 삶이니까요. 내 시간을 쓰고, 스케쥴을 조정하고, 돈까지 써가면서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자비의 삶이야 말로 천국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삶은 신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우리 삶이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감성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자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감사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불평을 하게 되죠. 내게 주어진 삶이 선물이며 신비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런 반응은 감사입니다.
식물학자이자 생물학자인 Robin Wall Kimmerer 는 그녀의 책 <Braiding Sweetgrass, 향모를 땋으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순진무구해 보이지만, 혁명적 개념이기도 하다. 소비 사회에서 만족은 급진적 태도다. 희소성이 아니라 풍요를 인정하는 것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창조함으로써 번성하는 경제에 타격을 가한다. 감사는 충만의 윤리를 계발하지만, 경제는 공허를 필요로 한다. 감사 연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운다."(로빈 월 키머러, <향모를 땋으며>, 에디도스 출판사 , 169 쪽) 여기에 나오는 '감사연설(Thanksgiving address)'이란 말은 아메리카 원주민인 오논다가 부족의 전통 의례를 말합니다. 이 부족의 학교에서는 감사 연설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마친다고 합니다. 감사 연설로 번역된 오논가다 말의 본 뜻은 "모든 것에 앞서는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야 말로 모든 것에 앞서는 말이라는 뜻이죠. 학생들은 자기 주위를 둘러보면서 피조물 속에서 생명의 순환이 계속 되는 것을 살핍니다. 그리고 피조물들과 더불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의무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감사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부르며 호명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대지, 물, 물고기, 나무, 밭작물, 약초, 새들, 바람, 달과 별, 동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도 모니터 앞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을 자연과 다시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연과 접촉할 때에야만 이런 감수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만족은 소비사회 안에서 혁명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경제는 부족하다고 속여서 욕망을 조작해 내려하지만, 감사는 그에 저항하게 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사랑, 지구 사랑의 시작입니다. 강도만난 지구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동시에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런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 6:9)."먹고 마시고 입고 소비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